# 2023 년 3 월 11 일 메시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 또 하나는 미래.’*
*(후쿠시마를 대표하는 위인•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요’ 박사)*

2011 년 3 월 우리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이어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12 년이 지난 지금, 그 냉엄한 상황과 현민의 괴로웠던 심정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2011 년에 ‘힘내자 후쿠시마!’
2012 년에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하자.’
2021 년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하는 후쿠시마’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구치 박사의 가르침대로 후쿠시마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는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희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how the people, not the NUMBERS!” 실제로 와서 보고 후쿠시마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하마도리 거리를 시찰한 와세다대학 국제 학생 기숙사의 학생 여러분)*

작년 8 월에 마을 전체가 피난을 계속해 왔던 후타바초 일부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12 군데의 모든 시정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의 후쿠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 및 후쿠시마 수소 에너지 연구 필드에는 일본과 해외로부터 기업과 연구자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수법을 이루어내고자 F-REI(에프 레이)라고 불리는 국립 지적 연구 거점 조성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량이 해마다 늘어나 지진 피해 전의 약 3 배인 431 톤에 달했습니다.
품질과 생산자의 정성이 해외에서도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옴으로써 해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민 여러분의 진력과 일본 국내외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해, 연료 및 물가 급등 등의 과제가 부흥의 현황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피난 지시가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자기 집이 있어도 되돌아갈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재개하거나 진출한 기업과 농업민이 일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뿌리 깊은 풍평이 존재합니다. 12 개 국가 및 지역에서 후쿠시마현산을 비롯한 일본 농산물을 수입 규제하고 있습니다.

***‘풍평이 뿌리 깊은 가운데 방류를 계속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업조합으로서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강이 연어로 가득 찰 날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기도강을 되찾을 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날마다 연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도강 어업협동조합 부화장장 스즈키 겐타로 씨)***

인내하며 부흥에 힘써 온 후쿠시마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향한 자세는 온리원의 매력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자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미지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을 동경하여 새로운 도전자와 응원하는 사람, 더불어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 연쇄적인 동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경의 사슬’은 역경 속에서 생겨난 우리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고향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아이들에게 지진 피해나 원자력발전 사고와 함께 이러한 우리의 자랑을 지속해 전하겠습니다.

불가능의 반대말은 도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같은 해에 호우 재해로 피해를 본 다다미 노선이 작년 10 월 1 일 전선이 복구되었습니다.
3 개의 철교가 떠내려가 경제성을 고려하면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거듭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비경을 보기 위해 노선을 찾는 일본 국내외의 사람들로부터 ‘기적의 부활’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는 재해를 극복한 부흥의 땅”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분 후쿠시마에 오셔서 보고 먹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신카는 후쿠시마의 도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더욱 새롭게 하는 신카(新化, 신화), 더욱 뛰어나게 만드는 신카(進化, 진화), 더욱 본질의 경지에 이르는 신카(深化, 심화). 인연과 신뢰를 소중히 하면서 신카를 계속해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2023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